

발표문

친짱 (서우두사범대학)

우선 이번 회의 조직 측의 요청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기승을 부리는 이 특수한 시기에 저는 운이 좋게도 여러 선배님을 통해 역사 속의 방역 관념과 실천에 대한 논의를 귀담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로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가 근대 의료사, 방역사가 아닌 관계로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세편의 논문에 근거해 간략한 의견을 제출하고, 아울러 목전의 전염병 발생과 방역 사업의 추이에 대해 현실적인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편의 논문 모두 주제가 명확합니다. 근대 중국, 일본, 조선이 전통 사회에서 현대로 전환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염병에 대응하고 방역 관념을 보급해 갔는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한민 교수와 이치카와 토모 교수는 각각 근대 조선과 일본 거류지에서의 전염병 확산과 방역 조치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개항구별 전염병 발생 특징과 각 정권이 행한 서로 다른 방역 대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신중 교수는 근대 중국의 신흥 국가 정권 그리고 개혁의 풍파 속에 있던 사신(士紳)계층이 어떻게 문명하고 위생적인 현대 방역 관념을 확립하고 보급해 갔는지,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구현된 권력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 있습니다.

1. 구분과 연결

대략적인 시대 구분이긴 합니다만, 근대는 구분과 연결이 공존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대 국가는 민족의 경계를 확립하고 전 지구적인 식민 확장을 지속해서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낳은 중요한 결과는 많은 새롭게 범주화된 단위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가령 세 편 의 논문에서 언급된 현대 국가, 거류지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정치, 행정, 경제, 공간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전염병의 발생은 이러한 인공적인 범주를 의도치 않게 파괴하기도 했죠. 바이러스와 세균은 구체적인 물체와 인체에 부착되어 전 세계를 떠도는 상인, 병사, 사절, 선박, 화물과 함께 확산됩니다. 전염병의 폭발은 바로 이러한 현대적이고 인위적인 범주의 무효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근대적인 범주는 전염병의 확산을 촉진하기도 했죠. 이러한 범주가 효력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잠시나마 합작과 연계를 시도하게 됩니다. 공동의 방역 지식과 체제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최종적으로 역병을 통제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전염병 확산의 새로운 형세와 더불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범주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폭발도 우리에게 구분과 연계의 복잡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존재하고 무단히 진화, 확산할 때, 우리는 모종의 방대한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초국가적인 단위가 존재하고, 중간 지점에 국민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가령 중국의 경우 성, 시, 구, 주민 주거단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정교한 방역(精淮防疫)에 있어 효과적인 구분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거리 하나를 사이 두고 서로 다른 행정 구획이 이루어져, 한쪽은 고도의 위험구로 지정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구분은 주민들의 생활 범위와 생활 양식(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가 격리되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출근도 가능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전염병의 확산은 전례 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항, 기차역, 버스 역과 같은 교통 중추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존의 역할과는 대극적으로 방역 체계의 약점을 노출하는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융통성이 있고 효율적인 체계를 운용하여 전염병의 돌발성 및 비상상태(非常態)적인 속성에 대응할지 역사와 작금의 현실이 지속해서 사고해야 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평등과 위계

목전의 전염병 서사 가운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용모가 흐릿하고 날로 증가하는 숫자로만 표현되는 '감염자', 그리고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감염자'들의 대조적인 관계입니다. 감염이란 측면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감염 서사에는 이러한 계층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지요. 바이러스 자체가 무차별적이라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 속의 위계성과 권력 관계가 반영됩니다. 이번 회의의 세 편의 문장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식민체계 하의 내국인과 지배자들이 방역을 둘러싸고 형성한 권력관계, 새로운 네이션(國家民族)들 속에서 서로 다른 계층(사신계층과 관료)들이 어떠한 방역 관념으로 자신의 주도권을 확립하여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 무엇을 담론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논의한 Susan Sontag의 "질병의 은유"라는 책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 전염병의 폭발을 계기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가령 국가권력, 국제관계, 생명권, 가족구조 등 이슈들은 역사의 관점에서 다시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전염병과 방역을 이해할 수 있지요.

3. 공동체/커뮤니티와 비정식 관계

세 분 학자의 문장은 주로 국가와 사회라는 차원을 둘러싸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점진적인 차원에서 역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시 말해 개인, 가정에서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를 인식하는 방향성이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중간 지점에 하나의 환절을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상부와 하부 구조를 잇는 공동체/커뮤니티입니다. 근대 배경의 전통 주거 양식인 사합원(四合院), 상해의 리농(里弄)과 같은 이웃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근대 도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확대가족(extended family), 근대 교육과 직업을 통해 구축된 친밀 네트워크 등, 이러한 공동체/커뮤니티는 모두 유연한 존재로서, 심지어 모종의 모호한 중간지대로서 새로운 관계, 체제와 구조를 지속해서 생산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학교, 회사와 같은 조직과 기구는 개인과 관련된 유효한 단위로 될 수 없고 심지어 방역의 중심적인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단지는 기층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공동체/커뮤니티에 주목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이지요. 방역 물자가 부족할 때, 친척, 친구와 같은 비정식 관계가 사람들이 물자를 획득하는 중요한 루트로 작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혹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물자 조달을 받을 수 없었지만, 친척 혹은 친구를 통해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물자의 유통과 공유를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도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사회와 국가의 체제적인 차원, 특히 기층 차원의 운용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대략적인 관찰과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